

ILT 백신접종후 폐사증가, 원인규명 놓고 공방전



ILT 백신접종후 90일령이 된 산란계 중추에서 눈꽃위에 이상이 생긴 닭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 근 경기도 광주와 평택에서 토종닭과 산란계 중추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ILT(전염성후두기관염) 백신 접종후 닭에 이상증상이 나타나 결국 폐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약품회사와 농가측에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피해를 호소한 농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전에 사용하던 타사제품의 ILT백신을 S약품회사 제품(ILT 수입백신)으로 교체, 사용하면서 전

에는 경험하지 못한 증상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통상 ILT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후 일주일을 전후하여 접종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크리닝을 해주면 15일 이전에 면역을 획득하여 건강한 닭으로 성장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농장에서는 입추후 20일령에 ILT백신을 접한 접종했는데 정상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15일이 지나면서 후유증을 나타내며 눈에 눈물, 버름, 백태현상이 나타나고 눈이

부어 결국은 영양부족으로 말라죽는 증세가 꾸준히 나타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농장관리 소홀로 생각하여 무심코 지나쳤으나 평택에 입추한 산란계(8월 18일 입추) 농장에서도 21,000수에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광주에서 토종닭을 기르는 이웃 농장에서도 이같은 증상을 발견하면서 백신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광주에 10월 24일 입추시킨 11,000수(S사제품 사용)와 11월 17일 입추시킨 3,000수(타사제품 사용) 계군을 비교해 본 결과 S사제품을 사용한 계군에서만 문제가 됐음을 설명했다.

그래서 심한 것은 20~50%까지의 폐사율을 보였고 토종닭의 경우 상품가치가 떨어져 1/3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겨우 처분해야하는 실정이고

산란계 증추의 경우 계약한 날짜에 산란계 농장에서 계약금 조로 일부만 가져갔을 뿐 처리가 안됐음을 호소했다.

약품회사 측에서는 피해를 입게된 직접적인 원인이 백신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동일한 약품이 큰 종계장은 물론 많은 양계농가에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 농장과 같은 사례의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없었음을 강조하고 수입되는 백신의 경우 철저한 국가검정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한 만큼 약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의심가는 것은 농장이 파이프 하우스 계사에서 사육되는 등 계사환경이 열악하며 환절기에 환기를 철저히 하지못한 관계로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계군상태가 약해져 2차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했으며 한편으로는 백신을 타사제품과 혼합 사용했을 가능성과 병아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약품회사 측에서는 원인을 분석키 위해 12월 27일, 1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수의과학 연구소에 가검물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농가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균



농장에 남아있다. 케이지에 옮겨져야 할 산란계들이 여전히

제 등을 투여,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수의과학 연구소에서는 가검물을 받아 부검해 본 결과 눈 주위에 백태가 끼고 토종닭의 경우 심하게 부어있었는데 대장균 검출이 많았고 ILT바이러스는 검출이 없었다는 소견을 주었다.

또한 환절기가 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접수되는데 보통 면역이 이루어지는 1~2주 사이에 야외 바이러스의 침입이 대부분이었음을 설명하고 ND백신을 제외한 모든 생독백신은 병원성이 다양하고 후유증이 개체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질병이 있기까지

1차적인 원인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됐으며 가검물만을 놓고 추정해 볼때 야외 바이러스의 침입이 있었음은 확실한데 다만 ILT백신 접종을 한 후 통상적인 접종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15일부터 후유증이 발생하여 꾸준히 증세가 나타나고 있음은 설명이 어렵다고 밝히고 난계대성 질병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라 밝혔다.

현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농장측에서도 가검물을 타기관에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이후에도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감정대립이 악화돼 자칫 법정 싸움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振) **2014**